



自然과 人間の 再發見

李 賢 宰

“인간은 만물의 척도(尺度)다.”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그라스(Protagoras)가 외친 이 말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각자 인간에게 속한다는 뜻이지만 이는 인간을 자연과의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로 본 견해이며 그리기에 자연계의 온갖 만물에 대한 인간의 책무까지도 일깨우려한데 그 본지(本旨)가 있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만물의 척도로서 손색없이 역할해왔는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생물을 다스리라.”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한귀절에 고무되어 신명이 났음인가. 한갓 정복자의 쾌(快)를 탐하기에 급급한 서구(西歐)문명이 종래는 가공할 핵무기를 개발하고 산업화일변도에서 빚어진 각종공해(公害)는 자연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는등 인류공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인류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슈바이처박사는 “사람은 초인(超人)이 되고 말았다. 그 자신에게 갖추어진 힘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정복을 통해 자연의 잠재적인 힘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초인이 된것이다. 그러나 초인적인 힘에 상응하는 초인적인 이성(理性)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니 과학·기술의 정복이 인류에게 끼친 공헌 못지않게 불행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인도주의(人道主義)로 환원하는 것만이 초인의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또한 그리스의 스토아(stoa)철학자들은 자연과 이

성에 따르는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의무”라고 일찌기 선언한바 있다. 자연에 따르는 일이 곧 신성(神性)에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며 자연이성을 추구하는것이 바로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신(神)본위의 종교적, 사상적 굴레에서 벗어나려한 르네상스의 물결도 필경 “자연의 빛”을 표방하는 이신론(理神論)내지 자연종교를 제창함으로써 휴머니즘(Humanism)을 고조시킨 것이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文藝復興)의 인간주의는 따지고보면 자연의 재발견을 지향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주의는 편협한 인간본위(本位)에 흘러이성과 자연을 구분하는것으로 변형되면서 드디어 자연은 정복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삼게 된데 화근이 생긴것이다.

한편 로보트라는 이름의 인조인간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인간소외(疏外)를 더욱 가속화시킬것은 두말할나위가 없거니와 인간이 하는일의 대부분을 로보트가 대신하게 될때 근로의 의미와 가치도 재평가되지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가치체계, 윤리체계도 심한 동요를 면키 어려울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면에서는 글로벌(global)하게 통일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심리적·정신적인 면에서는 도리어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으니 무엇에 연유함인가?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의 성격을 마케팅 퍼스낼리티(Marketing Personality)로 표현하여 주목을 끌었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삶 전체가 온통 팔고사는 장사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것이 사실인것

같다. 피차가 상대방을 이용가치로만 따진다. 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잘 팔릴수 있는 공부를 시킬가에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는 자제들을 어떻게 하면 상품가치가 있는 교육을 받게 할수있을까 하고 안달이다. 잘팔리는 상품이 되려고 대학도 고르고 학과도 선택한다. 상품규격에 맞추어 포장도 하고 연출도 한다. 상품화된 인간의 틀을 찾아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도처에 총총이 자리잡은 교회당, 전이없는 호황속에 안주(安住)하는 절 — 상품화현상은 거기서도 극성이다. 신도(信徒)규모와 입지조건에 따라 호가(呼價)가 달라진다고 하니 희극인가 비극인가.

그런중에서도 다른종교나 다른교파에 대한 광적인 배타의식은 누구에 의해 그토록 불붙여지고 부채질되는지..... 자기네 신(神)만을 유일(唯一)로 내세우는 종교의 대치(對峙)가 있는한 지구상의 평화는 결코 실현될수 없으리라는 극언(極言)도 허튼말이 아님을 실감케 하는 오늘의 지구촌이다.

줄곧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않는 중동지역, 유혈참극으로 얼룩지기일수인 레바논, 인도, 파키스탄등의 종교적 갈등을 바라보노라면 종교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수없는 회의(懷疑)에 잠기기도 한다. 언필칭 최고선(最高善)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이 지경인터에 어디서 인간성을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운위(云謂)할수 있겠는가. 종교계를 지도하는 분들이 우선 인간적으로 폭이넓고 덕성을 갖춘 인격자이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의지할곳 없는 불안한 대중들, 존경하고 사숙(私叔)할 진정한 스승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안식과 감화를 줄수있는 것은 당장에 종교지도자밖엔 없다고 여기기에 하는 말이다.

휘하(麾下)교도(教徒)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가족, 그리고 자기패거리밖에 모르는 웅졸한 인간을 만들수도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너그럽고 포용성있는 인간을 만들수도 있는것이 역시 그분들이다.

옛날에는 훌륭한 성자(聖者)나 고승(高僧)도 많았다던데 오늘엔 그럴사한분을 찾을길이 없으니 슬프구나! 부득불 역사상 인물들의 일화(逸話) 한토막을 소개해본다. 중국강서성(江西省)의 명승지 여산(廬山)에 얽힌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故

事)다. 진(晉)나라때 여산의 동림사(東林寺)에 있던 혜원법사(慧遠法師)는 어느해 여름 안거(安居)의 수행에 열중하고 있었다. 절간밖으로는 한결음도 나갈수없는 금족(禁足)의 참선인데 하루는 이름높은 유학자(儒學者)이며 대문장가인 도연명(陶淵明)과 당대의 도법사(道法師)로 추앙받던 육수정(陸修靜)이 방문해왔다. 세사람의 만남은 실로 유, 불, 도교를 대표하는 어진이 세분(三賢)의 역사적 회동이었던 것이다.

자기가 신봉하는 교(敎)를 초월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전개된 격조높은 화제의 꽃에 취한 나머지, 금족의 계(戒)도 잊은채 혜원은 두사람을 전송하고 있었다. 때마침 호계다리를 넘는 순간 숲속에서 맹호(猛虎)의 울음소리가 나는지라 세사람은 다시한번 파안대소(破顏大笑)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는 뜻깊은 사연인 것이다. 영적지도자를 자처하는 오늘의 종교계 인사들이 두고두고 음미(吟味)해 볼만한 것이다.

휘히테는 “독일국민에 고함”이란 제하(題下)의 유명한 강연에서 “인간이 태어났을때 자연에게서 받은 본능은 순수하다.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킨것은 인간으로 이룩된 사회다”라고 갈파한바 있거니와 끄찍하고 소름끼치는 흉악살인범들의 범행동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한탕주의, 물질주의에 짓눌린 도덕심의 마비를 극명하게 읽는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속에서나마 자기가 하는 행동을 내면생활과 직결시키며 성찰(省察)하고 살아왔다. 이해타산을 초극한 그 이상의 것이 거기에는 자리할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아닌 것에 나를 맡기지 않을수없는 제도적·기능적 메카니즘(Mechanism)속에 자아(自我)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우리한국인은 특히 지난 한세대(世代)에 걸쳐 경제성장상을 외곶으로 추구해오면서 정신적인 황폐에 빠진 흔적이 도처에 노출된다. 우리자신들은 미처 깨닫지못하는 사이에 남의 일로 빈정댔던 경제동물로 전락하고 만것이다. 배금사상(拜金思想)에 의해 전래의 미풍양속은 오염되고 저질소비문화에 탐닉(耽溺)하는가하면 인간의 내재적(內在的)가치를 추

구하는 노력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사회상이다.

이때야말로 우리모두가 나라를 근심하고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국지사(憂國志士)가 되어야 한다. 황금만능의 가치관이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인간자체를 천박한 속물(俗物)로 타락케 함에 경종을 울리면서 정신적풍요가 궁극적으로 인간됨의 척도가 된다는것을 몸소 실천입증 시켜주는 현대판 선비들이 쏟아져나와야 한다.

어느시대 어느국가 어느사회나 지도세력이 그 흐름을 좌우한다. 지도세력이 썩고 병들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때 그 연쇄반응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불을보는 것처럼 흰 것이다.

잃어버린 자아를 재발견하고 자연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여 인간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범국민적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각계 ‘엘리트’들에게 그 일차적 책무를 지울수밖에 댄 도리가 없다.

아울러 대중매체 특히 T.V방송의 계도적(啓導的)

기능이 시급히 향상되어져야 한다. 오늘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참된 인간을 훈도(薰陶)하는 장(場)으로서 구실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한것이다.

일본, 영국, 독일등 선진각국의 공영T.V가 수행하는 사회교육적 역할이 얼마나 큰것인가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KBS일반방송채널중 하나만은 광고방송을 없애고 교양프로그램을 위주로하는 공영방송으로 명실공히 제자리를 잡아야한다. 공영방송이라하여 시청료징수는 꼬박꼬박하면서 상업광고선전까지 떠맡아 과소비의 부추김이나하고 광고비과다지출로 인한 원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면 이런 해괴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국가경영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국정최고지도자의 주저없는 단안(斷案)이 한시바빠 내려져야 한다.

(筆者：本會理事・前國會議員・初代國立公園委員)

